

술과 人生的 餘裕



趙健相

<成均館大學校 國文學科教授, 小說家>

우리들 인생살이에서 술에 관한 逸話는 무척이나 다양하다.

그런데 그 일화들은 대체로 애매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서 술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주관이 서 있지 않으면 술 자체가 유익하다는 것인지 해롭다는 것인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을 지경이다. 말하자면 是非善惡이 애매한 兩是論과 兩非論의 어정쩡한 논리로써 술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적당히 마시면 혈액 순환을 돕고 자신감과 활력을 증진시킨다거나 깔꺼름한 인간관계를 매끄럽게 이어주는 潤滑유 구실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이요, 지나치면 건강을 해친다거나 失言과 失態를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역대의 영웅호걸이나 詩人墨客들 치고 술에 얽힌 奇想天外의 일화 하나씩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다시피하고 그들에 얽힌 일화들은 대부분 대장부다운 호탕스러움이나 超人이나 達人의 품모로 美化되고 있을지언정 술로 인해서 패가망신하고 술주정꾼으로서 건강을 해치고 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그리 없는 것을 보면 술은 역시 영웅호걸과 시인묵객들을 더욱 敬畏스럽게 만드는 妙藥인 것 같다.

몽롱하게 취한 이태백이 호수에 비친 달을 사랑하여 물 속으로 뛰어들어도 미치광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그가 자연 속에 몰입되어 物我一體의 仙境에 빠져들 줄 아는 맑은 영혼을 지닌 詩人이었기 때문이고 그의 이같은 詩人精神은 술을 매개체로 해서 더욱 신비스럽게 승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고전인 「삼국지」나 「수호지」에 나오는 많은 영웅호걸들은 斗酒를 불사하는 豪酒家 들로서 향아리 채로 술을 들이켜고 바가지로 술을 퍼마시면서도 창이나 장검을 가벼운 막대기처럼 놀리며 비호처럼 말을 달려 적군의 목을 풀잎 배듯 잘라버리는 호쾌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뭐니뭐니 해도 술에 관한 逸話 중에서 가장 우리의 관심과 호기심을 끄는 것은 술에 취해서 저지른 실수나 기상천외의 무용담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가장 적나라한 인간의 本體를 드러낸 것으로서 우리에게 짜릿한 감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권위와 근엄의 표상처럼 느껴지는 名士들이지만 술 때문에 저지른 그들의 인간적인 실수에서 우리는 속이 후련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흔히들 술의 妙味는 위신이나 체면의 탈

을 훌훌 벗어버리고 보다 적나라한 인간의 본체를 스스로 없이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매기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초인적인 힘을 과시하거나 신출귀몰하는 재주를 가진 영웅호걸의 존재는 없어졌다. 그들은 神話나 傳說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들은 이미 초월적 존재이기 때문에 경이로운 대상일 뿐 인간적인 친숙감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지는 못한다. 그들이 항아리에 가득한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의 사실여부를 구태여 논하려 하지 않는다. 기껏해야 술을 많이 마신다는 말의 과장된 표현으로밖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예로부터 역시 술을 빼놓고 영웅호걸을 거론한다는 것은 불 없는 화로처럼 싱겁고 썰렁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술을 잘 마신다고 영웅호걸이 되는 것은 어니지만 술을 못 마시는 영웅호걸 또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월적 존재인 영웅호걸이 사라진 반면에 우리와 친근한 시인묵객들의 술에 얽힌 奇行들은 언제나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한다.

시인묵객들과 술과의 함수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영감과 기발한 착상으로 오색영롱한 작품이라는 비단을 짜내야 하는 시인묵객들은 보통사람과는 다른 상상의 세계를 체험하거나 사물에 대한 이해와 접근이 도도한 흥 속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다. 따라서 번잡스런 속세의 잡념을 훌훌 떨치고 작품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한 잔의 술이 없을 수 없다.

송강 정철의 시조에도 술을 즐기는 시인묵객의 정취가 고스란히 스며있는데 그 중에서도 다음의 시조는 한 폭의 동양화같은 아름다움이 느껴진다.

재 너머 成勸農 집의 술 익단 말 어제 듣고
누운 소 발로 박차 언치 놓아 지글 타고
아해야 네 勸農 계시냐 鄭座首 왔다 하여라.

성급한 마음에 점잖은 체면을 돌볼 새도 없이 누워있는 소를 발로 건어차서 일으켜 세운 후에 갈개를 놓고 올라타고 어느 틈에 쓴살같이 산고개를 넘어왔는지 이미 成勸農 댁의 문 앞에 당도하여 주인을 찾는 손님의 모습이 눈에 잡힐 듯이 다가온다.

이렇듯 옛 선비들은 서로 친구의 집을 방문하며 다정히 술을 나누었는데 취흥이 도도해지면 시를 짓고 시조를 읊으며 꽃잎으로 마신 술잔을 算하면서 밤이 이슬토록 그윽한 낭만을 즐겼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김삿갓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달랐다. 그는 낭만과는 거리가 먼 悲運의 선비였고 시인이었다. 원래 그의 할아버지인 金益淳은 宣川의 府使였는데 흥경래의 난 때 투항한 죄로 집안이 멸족을 당하였다. 그때 김삿갓은 노복의 도움으로 황해도 谷山으로 피신해서 공부하였다. 나중에 그의 집안은 멸족에서 폐족으로 사면되어 김삿갓은 형과 함께 어머니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다. 어머니는 자식들이 폐족자로 멸시를 받는 것이 언짢아서 강원도 영월로 옮겨 숨기고 살았다. 이 사실을 알 길이 없는 김삿갓은 과거에 응시하였는데 그의 할아버지 金益淳의 죄를 조롱하는 글을 써서 장원급제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내력을 어머니로부터 들은 김삿갓은 조상을 욕되게 한 죄인이라는 자책지심과 폐족자에 대한 멸시 등으로 20세 무렵부터 처자식을 버려둔 채 방랑의 길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의 시는 세상과 인생에 대한 질은 풍자와 저항성을 띠게 되고 그는 울분과 통탄을 술로 달래며 바람 따라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며 奇人으로서의 생애를 마쳤던 것이다.

어느날 그는 동남으로 얻어 먹은 밥이 선밥임을 알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짓게 된다.

스무나무 아래 앉은 설운 나그네에게
(二十樹下三十客)
망할놈의 마을에선 선밥을 주더라

(四十村中五十食)

인간에 이런 일이 어찌 있는가

(人間豈有七十事)

내 집에 들어가 설은 밥을 먹느니만 못하구나

(不如歸家三十食)

문전걸식하던 김삿갓은 원밥을 받아두고 인정의 야박스러움을 이렇듯 풍자하며 유유히 세상을 떠돌아다녔던 것이다.

이 시에서는 전통적인 漢詩의 신성함과 권위에 대한 도전이 엿보이고 樣式을 과감히 파괴하는 실험정신도 드러나고 있는데 당시 사회의 모순에 대한 불만이 절망적 분위기와 함께 이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당쟁과 사회가 빈번히 일어나서 정권에서 내몰린 당파는 자연히 초야에 묻혀 술로써 시름을 달래며 은인자중 기회를 엿보며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들 山林學派들의 문학작품에서는 自然과 술과 낚시질 등이 빈번히 등장하여 인간과 자연이 혼연일체가 되어 자연에 묻힌 인간의 생활이 드러남으로써 소위 江湖歌道를 형성하기에 이르르고 있다.

그런데 술로써 시름과 울분을 달래며 痛恨의 아픔을 이겨내던 시기로서 嗚呼할 수 없는 것이 36년 간의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잊을 수가 없다.

나라를 빼앗긴 설움과 出口가 막혀버린 현실 속에서 이 나라의 지식인들은 짐승같은 울음을 터뜨리며 술을 마셨던 것이다.

현진건의 소설에 「술 권하는 사회」라는 작품이 있는데 암담한 사회현실 때문에 지식인들은 울분을 참을 수가 없어서 본의 아니게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는데 이같은 현실을 역설적인 표현으로, 이 사회가 우리에게 술을 권한다고 말함으로써 당대의 어두운 현실을 나름대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술을 마시는 것은 신분과 계층의 구별이 없지만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時나 小說을 쓰는 文人들이나

예술가들이 대개는 술을 좋아하고 일상생활이 약간은 비틀어진 것처럼 인식되는 것도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의 예술가와 문인들이 보여주었던 非凡한 생활양상에서 연유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같은 생활태도가 하나의 전통처럼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문학이나 예술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술을 마셔야 한다는 인식이 하나의 고정관념처럼 우리의 뇌리에 박혀버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는 것이다.

어쨌든 일제 치하의 우리 선배들은 이유와 동기가 어떻든 꼭 낭만적으로 술을 마셨던 것만은 사실이었던 것 같다.

나의 대학교 은사였던 月灘 朴鍾和 선생은 그 당대의 체험적 상황을 강의 도중에 간간히 섞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바람에 무한한 동경과 호기심으로 가슴이 울렁거리던 아름다운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말하자면 당시에 白潮派라는 문학동인들의 멤버였던 나도향, 현진건, 노자영, 홍사용 등과 어울려서 지금의 서울역인 남대문역에서부터 시작하여 미아리고개 밑의 돈암동까지 이르는 동안에 눈에 띄는 술집마다 들러서 꼭 한잔 씩만 마시고 다음 술집으로 이동하는 대행진을 벌이는데 관철동 입구에서 벌써 낙오자가 생기는가 하면 혜화동 근처까지 버티며 따라오는 사람 중에는 월탄선생 자신도 끼어있었다고 빙그레 웃었다.

나는 아직도 월탄선생의 그 웃음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자랑스러운 웃음같기도 하고, 씩스러운 웃음같기도 하고, 어찌면 그 당시의 정황이 갑자기 그리워지기도 하는 듯한 그 웃음의 색깔이 꽤 인상적이었던 것만은 확실했다.

물론 이들 안하무인의 술꾼들은 어느 술집에서 나와 다른 술집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어깨동무를 하고 禁止曲인 「아리랑」과 「울밑에 선 봉선화」를 행진곡처럼 부르다가 일본 순사와 맞부딪치는 바람에 혼쭐이 났었다는 이야기며 성균관대학 뒷산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소를 타고 시내로 進入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는 이야기며 참으로 무궁무진한 술이야기가 그야말로 질펀한 술판처럼 낭자했으니 대학교 1학년이었던 당시의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먼 옛날의 신선놀음같은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월탄선생은 당대의 다른 文人들에 비하여 음주 습관이 과격스럽다거나 기이한 점이 두드러지지 않아서 알맞은 일화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지만 무에 양주동선생이나 황보 염상섭선생, 그리고 수주 변영로선생같은 분들은 술에 관한 술한 일화를 남기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화제에 오르고 있다.

특히 성격이 활달하고 행동이 익살스러운 양주동선생의 경우에는 그의 저서인 「文酒半生記」에 나와 있듯이 포복절도할 익살과 해학의 파노라마를 연출한다.

양주동선생이 처음 술에 취해본 것이 열살 때라고 하니 어린 소년시절부터 그는 술에 관하여 말썽을 일으키고자 작정을 했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처음 술에 크게 취하기는 아마, 열살 때라 기억한다. 집에서 술을 빚어 그 독을 광에 두었는데, 그 芳醇한 내음과 향기가 그야말로 부엌을 지나, 마루를 건너, 사랑에까지 미쳐 소년 〈장부〉의 비위를 건드림이 자못 심하였다. 마침 어머니 없는 틈을 타서 내가 큰 사발을 들고 광에 침입하여 술독의 뚜껑을 찢히고 우선 한바탕 내음을 쾌히 맡아본 뒤 몇 사발을 연거푸 마음껏 퍼먹었다…略…

안주는 무엇이었을까? 광에 북어패가 걸렸었겠으니, 아마 마른 북어를 찢었겠지, 아뭏든 그 뒤엔 기억이 없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서 밝히느라고 다소의 착오나 과장이 있을 법도 하지만 어쨌든 그로부터 3일 동안 대취하여 깨어나지 못했었다는 양주동선생이고보니 나중에 그의 술버릇이 된, 술맛의 청탁

에는 관심이 없이 주로 다량으로 마시고 쓰러지는 그의 주벽은 이 때가 장엄한 전초전이요 서곡이 아닐 수 없다.

이밖에도 양주동선생은 댓가지 수효를 셈하여 술값을 지불할 때 의도적으로 술에 취한 척하면서 댓가지를 탁자 밑으로 떨어뜨리는 속임수의 익살을 부리거나, 소설가 方仁根의 집에서 만취된 몸으로 詩人 이장희와 함께 자다가 본인이 취중에 오줌을 썼는데도 이걸 이장희에게 덮어 씌우려는 억지도 부렸고, 主禮를 서는 댓가로 맥주 한 박스를 받드시 요구하는가 하면, 미션계통의 숭실전문대학에 재직 중일 때 학생들을 인솔하여 묘향산으로 수학여행을 갔었는데 학생들을 산에 올려보낸 후 혼자서 여관에 남아 기다리기가 무료하여, 술을 못 마시게 되어 있는 교칙을 어기고 여관주인을 시켜 정종 한 병을 부탁하여 마시다가 그것이 부족하여 다시 두 병을 더 시켜 마시는 사이에 산에 올라갔던 학생들이 내려오는 행렬을 보고 엉겁결에 여관을 탈출하여 도망을 치게 되었다. 이 모습을 본 학생들이 물색도 모르고, 왜 먼저 가시느냐고 의아해서 뒤쫓아 오지만 양주동선생은 뒤도 안 돌아보고, 아내가 해산을 하게 되었다고 집에서 급한 전보가 왔기 때문에 먼저 간다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버스를 타는 것까지는 성공했으나 나중에 여관주인이 학생들에게 양주동선생이 마신 정종 세 병 값으로 3원 60전을 청구하는 계산서를 내미는 바람에 모든 것이 들통나고, 그날 술 먹고 도망친 죄값으로 사냥꾼에 쫓긴 꿩새끼처럼 대가리만 덩불 속에 처박고 쫓기는 밖으로 내놓은 듯한 꼴꼬러운 세월을 보냈었다는 이야기 등등 양주동선생과 술은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무수히 이어지고 있다.

그리하여 양주동선생의 생애에 만약 술이 없었다면 중흥무진 발휘되던 그의 익살과, 자유분방한 멋과, 넉넉한 인정과 낭만의 세계가 얼마나 삭막하고 쓸쓸했을까를 생각해보며 혼자 히죽 웃어본다.

橫步 염상섭선생 역시 대단한 술꾼이었다. 그리

하여 그의 雅號가 비틀비틀 옆으로 걷는 橫步인 것도 제격이라는 생각이다.

횡보의 맏아들인 염재용씨의 회고의 글에 의하면 운명하기 직전에 급히 사온 정종 세 수저를 횡보의 부인이 횡보의 입에 흘려 넣어서 마지막 숨결에서 술내가 풍겼던 일은 정녕 文豪이자 酒豪인 횡보의 임종다웠다고 하는데 이것은 횡보를 더욱 횡보답게 떠나보낸 가족들의 여유라고 여겨져서 가슴이 뭉클하기까지 하다.

평소에 횡보의 술주정은 참으로 유별나고 까다로운 것이었다.

1942년 경 횡보가 만주에서 살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 잘 알고 지내던 중국인이 10년 묵은 빼갈한 되를 선사해 왔다.

횡보는 저녁무렵부터 시작하여 밤 9시까지 혼자서 그걸 마셔댔다. 그리고는 옆에서 자고 있는 아들을 연거푸 깨우며 「네가 옆씨 집안의 장손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타일렀다.

그러니까 아들은 「네, 알았습니다」하고 대답하고, 횡보는 「졸리냐, 어서 자거라」하고 순순히 아들을 놓아 주었다. 그런데 이 몇 마디 되지 않는 간단한 부자지간의 대화가 10분 간격을 두고 대여섯 번은 되풀이 되었다. 그리고는 밤 10시 쯤이나 되었을 때 이번에는 자고 있는 부인이 시달림의 대상이 되기 시작했다.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고 있을망정 명색이 남편인데 아내라는 것이 썩썩 자고 있어! 안주가 뭐 이따위야!」

술상 위에는 호콩과 찢은 북어가 놓여 있었다.

횡보의 부인은 남편의 성미를 아는지라 말없이 일어나서 가스곤로와 전기곤로로 쇠고기와 생선 안주를 끓여 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횡보는 본디 육류를 그리 좋아하지 않기 때문인지 손가락 한번도 대지 않고 술만 마셨다.

이윽고 불을 붙이면 시퍼런 불길기 타오르는 독한 빼갈 한 되가 거의 바닥이 나기 시작했다. 그러

자 횡보의 주정이 또다시 시작됐다.

「아니, 국이고 찌개고 간에 다 식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횡보의 부인은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데워다가 술상에 올렸다. 그러나 횡보는 거의 손가락을 대는 법이 없다가 음식이 식으면 또 똑같은 호통과 주정이 되풀이 되었다.

빼갈이 동이 나자 이번에는 백러시아인이 만든 보드카 위스키가 찬장에서 나왔다. 얼마 후 동이 트자 위스키는 반 병이 겨우 남았다. 이쯤 되면 횡보는 이틀 동안은 능히 절근을 했다.

횡보의 술주정에는 또 이런 역사적인 에피소드도 있었다.

횡보는 33세에 방년 19세의 아리따운 신부와 결혼했는데 신혼 3일 만에 그만 특유의 술주정을 부렸던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횡보의 술주정에 놀란 신부가 친정으로 피신을 해버렸다.

이튿날 퇴근길에 횡보는 처가를 찾아가긴 찾아가야 하는데 멍송멍송한 모습으로 찾아가갈 용기가 좀처럼 나지를 았았다. 그래서 숫기가 좋지 않은 노신랑은 한 잔만 걸치고 간다는 것이 그만 일배 또 일배 겹쳐졌다. 그래서 막상 처가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는 그야말로 갈지자 걸음의 횡보스타일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아무개의 신랑인 文士가 저기 온다고 길가에 장사진을 이루었다고 한다.

횡보는 돈은 없었지만 외상술집을 마련해 놓고 거래를 트는 재주가 있었다.

이사를 자주 했기 때문에 낯선 동네인데도 이사를 한 지 2~3일 쯤 되면 외상술집을 마련해 놓고 그 술집에서 새벽녘에 해장을 할 때가 많았는데 어떤 때는 혼자 마시기가 적적하다고 근처의 파출소에 있는 숙직경관을 불러내어 대작을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술에 취하여 돌계단에 넘어져서 아랫입술이 크게 찢어지는 바람에 술을 마실 때마다 그 구멍으로 술이 줄줄 흘러내리자 고개를 모로 체쳐서 술을 마시는 횡보의 橫飲을 창안해 내는 피를

부리면서까지 황보는 술을 사랑했던 것이다.

술 마시는 사람치고 악인은 없다고들 하는데 이 말은 애주가들의 자기 변명이 아니라 술은 인간을 모두 노출시켜서 인간의 바닥을 보여주는 진솔성이 있기 때문에 은혜와 움츠림이 없어진다. 그리하여 가슴을 활짝 열어놓고 일상의 답답한 굴레에서 벗어나 어린아이처럼 해맑은 영혼을 구가했던 선배 문인들의 심성이 참으로 마음 편한 여유로 다가온다.

그리하여 나는 이렇듯 많은 문단의 스승과 선배들을 멀리서 私淑하며 그들의 발뚨꿈치나마 따라가려고 온갖 눈치와 코치를 동원하며 대학생활을 보내는 동안 문학에 뜻을 두고 몰려다니던 몇몇 친구들과 선배문인들의 행적을 모방한, 술과 낭만과 일상생활에서의 일탈 등을 우리의 생활 속에 접목시키려고 천방지축으로 설쳐대던 부끄러운 기억을 가지고 있다.

월탄선생과 그 일행들은 서울역에서 돈암동까지 술집을 뒤지며 술마시기 시험을 벌였지만 우리들은 마침 의정부에 사는 친구의 집을 방문하는 기회에 학교 앞에서 의정부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정류소마다 내려서 술을 마시며 의정부까지 가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수유리를 겨우 지내놓고 계획이 틀어져버렸다. 그것은 돈과 시간과 酒量의 한계 때문에 어긋나버린 우리들의 꿈이었다. 지금처럼 교통사정이 여의롭지도 않은 60년대에, 더구나 시외버스의 사정은 말이 아니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중도에서 내려 술 한잔을 마시고 다음 버스를 기다리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기 시작하는 것이었고 학생신분의 호주머니도 알뜰하기 짝이 없어서 들어서는 술집에서마다 안주를 시키는 것도 엄청난 부담이었을 뿐만 아니라 술이 약한 친구들은 어느새 길가의 전신주를 붙잡고 토악질을 시작하고 있었으니 낮선 길가에 낙오병들을 버려둔 채 그냥 갈 수도 없는 우리들은 낙오병의 등을 두드려 토악질을 도와준 후 그들을 부둥켜 안고 버스에 기어오르자니 이만저만 고역이 아니었

던 것이다. 결국 의정부까지의 大長征은 중도에서 무산되고 마지막 버스를 타고 어둠이 내린 서울 거리에 되돌아온 우리들의 모습은 모두가 패잔병에 다름없었다.

그런데 꽤거리로 몰려다니며 퍼마시던 우리들의 술값은 향토장학금(고향에서 부쳐주는 등록금)의 일부에서 충당할 때가 많았지만 우리들은 또 수필이고 소설이고 시 나부랭이고 가릴 것 없이 대학신문 문예란에 투고하여 생기는 원고료를 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과 막걸리 한 사발로 기고만장해서 히히덕거리며 대학생활을 마쳤다. 그리고 우리들은 뽀뽀이 흠어졌다. 그런데 내가 나름대로 술다운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은 군대생활을 마치고 70년대에 문단의 말석이나마 차지하고 앉아서 소설가의 칭호를 받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패기가 만만하던 나또래의 젊은 문인들과 꽤거리를 지어서 淸濁이고 斗酒고 가리지 않고 마치 오기를 부리듯이 마셔대다가 아직 식술을 거느리지 않은 출가분한 총각 신세를 빙자하여 통행금지 시간이 가까워지면 또다시 꽤거리를 지어 종로 5가 뒷골목의 여관으로 기어들어가 원고지의 네모난 칸속에 ㅼ져죽을 놈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어찌구악을 쓰면서 동료문인들과 언쟁을 벌이는 것으로서 율쟁이 문인으로서의 入門을 시작했던 것이다.

이 시기에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까지 너무 순진하게(?) 세상을 살아온 탓인지 아직까지 파출소의 문턱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고 더구나 경찰서의 보호실이나 감방은 상상 속에서도 잘 떠오르지 않는데 그런 체험도 없이 어떻게 소설을 쓰겠느냐고 괜한 오기와 모험심을 발동시켜 자의반 타의반으로 하룻밤 동안 경찰서의 보호실 신세를 진 일이었다.

물론 이같은 오기와 모험심이 발동하게 된 직접적인 動因은 밤이 깊어서 버스는 이미 운행이 끊긴 데다가 택시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그렇다고 혼자 여관으로 뛰어들어가 지저분한 이부자리 속에서 하

룻밤을 보낸다는 것은 견딜 수 없이 따분한 노릇이라고 생각하던 차에 지나치게 오른 술기운은 나로 하여금 호기를 부리게 했던 것이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작가 오·헨리의 「찬송가와 순경」이라는 작품이 나의 모험심을 야릇하게 부추겼던 것이다. 「찬송가와 순경」에 나오는 주인공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떠돌이였다.

그는 어느 늦은 가을날, 얇은 옷 속으로 스며드는 소슬한 가을바람을 느끼며 공원의 벤치에 홀로 앉아서 다가올 겨울을 생각하고 있었다. 춥지 않은 계절에는 그런대로 공원의 벤치나 남의 집 추녀 끝에서 새우잠을 자더라도 견딜 수는 있었지만 매서운 추위가 닥쳐올 겨울에도 露宿을 하며 살아갈 수는 없었다. 그는 생각 끝에 가벼운 죄를 짓고 겨울 동안만 교도소 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무사히 겨울을 넘길 수 있겠다는 나름대로의 기발한 생각을 하기에 이르러서, 가벼운 죄를 지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는 내용의 소설인데 왜 하필이면 그때 이 소설이 머리에 떠올라서 내 오기와 모험심에 불을 질러버렸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때 나는 막연하나마 파출소의 내부 풍경과 보호실의 구조와 거기에 갇혀있는 못사람들의 표정과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관찰하는 단 하룻밤만의 억류를 생각했다. 그리하여 구체적으로 단 하룻밤만의 억류에 해당되는 범법 행위를 생각한 끝에 高聲放歌나 路上放尿를 떠올렸다. 그러나 경찰에게 잡힐 때까지 미친 놈처럼 고성방가를 하며 거리를 소다닐 수도 없고, 막상 고성방가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게 꼭 범법으로 걸려들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노상방뇨라는 것도 수도꼭지를 열었다 닫았다 하듯이 자유자재로 便意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 한번의 노상방뇨로 결말을 내기로 한다면 순경이 보는 앞에서 파출소의 문짝에다가 일을 벌여야 할 텐데 그것 또한 웬만한 배짱과 비위로는 어렵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호실에 갇히는 일이었다. 통행금지 위반이야말로 극히 자연스럽고 손쉬운 범법 행위가 아닐 수 없었다.

밤 12시가 지나서 길거리를 걸어가면 방범대원이나 경찰이 호루라기를 불어서 나의 발길을 제지할 것이고 나는 그들의 지시대로 고분고분 파출소에 잡혀가면 나의 모든 계획은 의도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 솔직한 내 심정은, 작품을 쓰기 위하여 스스로 경찰서의 보호실 신세를 지겠다는 생각은 내 예상대로 내가 통금위반으로 파출소에 끌려가고 난 후에 체념적으로 自慰해 보는 변명에 불과했고, 사실은 술기운을 등에 업고 通禁의 밤거리를 겁없이 걸어가기 하면서도 운 좋게 방범대원이나 경찰의 단속을 피하여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었다.

어쨌거나 나는 그날 밤, 경찰서의 보호실에서 하룻밤을 묵었고, 이튿날 즉심판결에서 3천원의 과태료를 물고 풀려나는 생생하고 감명 깊은 체험을 유감없이 겪었으니 소원은 풀린 셈이었다.

그후 나는 그날의 체험을 바탕으로 「李教授의 外泊」이라는 단편소설 속에서 보호실의 풍경을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었으니 술로 인하여 빚어진 오기가 값진 체험으로 이어졌고 이같은 체험이 또한 작품으로 형상화 되었으니 술의 고마움에 삼가 심심한 謝意를 표해야만 할 것이다.